

# 유쾌 '최약체' 평가에도 美·日·쿠바 격파



(왼쪽 위부터 시계 반대방향) 김현수, 박병호, 이대호, 차우찬, 이용규, 오재원.



# 상쾌 김인식 감독, 국제대회 우승 恨 풀어

## 한국, 프리미어 12 우승 과정

제1회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 12에서 극적인 우승을 차지한 야구 대표팀이 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돌아왔다. 김인식(68) 감독을 포함한 코칭스태프와 28명의 선수들은 22일 오후 김포공항으로 입국했다. 지난 6일 인천공항에서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로 떠난 지 16일 만이다.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속에 장도에 오른 한국 야구 대표팀은 일본 삿포로돔-대만 타이베이-대만 타이중-일본 도쿄를 거치며 점점 강해졌고 4강전에서 WBSC 랭킹 1위 일본, 결승전에서 야구 중가 미국을 차례대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팀 전력의 약했던 만큼 이번 대표팀이, 프리미어12 초대 챔피언으로 등극하는 과정은 정말 짜릿했다.

한국은 8일 삿포로돔 개막전에서 일본에 0-5로 완패하고, 15일 대만 타이베이 티엔무구장에서 열린 미국과 B조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는 승부처기 끝에 2-3으로 패했다. 그러나 '진짜 승부'가 펼쳐진 일본 도쿄돔에서 설욕에 성공했다. 16일 쿠바와 8강전에서 7-2로 승리한 한국은 19일 일본과 준결승에서 0-3으로 끌려가다 9회초 대거 4점을 뽑으며 4-3 극적인 대역전극을 연출했다. 21일 미국과 결승전에서는 투타의 완벽한 조화를 뽐내며 8-0 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프로 선수가 출전한 국제대회에서는 우승을 눈앞에 두고 아쉽게 돌아

섰던 '국민사령탑' 김인식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국제대회 우승의 환을 풀었다.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준우승을 달성한 뒤 6년 만에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복귀해 거둔 쾌거였다. 역대 최다인 팀당 144경기를 치르고, 포스트시즌까지 소화하며 체력적인 부담이 컸던 대표선수들의 투혼도 이번 대회를 빛냈다. 2015년 가을을 찬란하게 장식한 대표 선수들은 스토브리그도 뜨겁게 달굴 기세다. 챔피언 트로피를 들고 환호한 박병호(넥센), 이대호(소프트뱅크), 김현수(두산), 손아섭(롯데)은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FA(자유계약선수) 대어로 꼽히는 정우람(SK)과 오재원(두산)은 원소속구단과 협상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 통쾌 '도쿄대첩' 대역전극... 日 ㅍㅍ수 무용지물

## 아기 호랑이 방망이 매섭네

## 한화와 연습경기서 박진두·신범수 장타 '펑펑'



###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호랑이 군단'의 실전 테스트가 진행됐다. 일본 오키나와에 마무리캠프를 차린 KIA 타이거즈가 22일 고진다 구장에서 한화 이글스와 연습경기를 치렀다. 지난 20일 홍백전을 갖고 몸을 풀 KIA는 이날 캠프 첫 연습경기이자 마지막 연습경기를 치르며 긴 여정을 돌아왔다. 1회부터 4점을 뽑아낸 KIA는 12-5로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게 실전 테스트를 끝냈다. 1회부터 타자들의 집중력 있는 플레이

가 돋보였다. 1회초 고영우가 볼넷으로 선두타자 출루에 성공했다. 김호령의 유격수 땅볼로 선행주자가 아웃됐지만 백용환이 볼넷을 굴러내며 1사 1·2루가 됐다. 박진두의 좌전안타 때 2루에서 있던 김호령이 홈까지 쇄도하면서 선취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홈에서 승부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자 백용환은 3루까지 진루를 하며 상대 수비진을 흔들었다. 그리고 2사 2·3루에서 이인행의 타구를 잡은 유격수의 실책이 나오

면서 백용환이 홈을 밟았다. 홍재호의 안타와 우익수 실책을 더해 KIA는 1회 4점을 뽑아냈다. 2회에는 공격적인 타격이 이뤄졌다. 선두타자 전은석이 우익수 키를 넘기며 2루로 향했고, 고영우의 안타가 이어지면서 5-0이 됐다. 김호령의 타구를 전진수비를 하고 있던 좌익수가 놓치면서 이어진 기회. 백용환의 2타점 적시타와 이인행의 적시타가 터지는 등 활발한 공격이 전개됐다. KIA는 상대의 2루수 송구 실책까지 더해 2회 5점을 보태며 9-0으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신예 선수들의 매서운 스윙도 눈길을 끌었다. 고졸 2년차 박진두가 한화 두 번째

투수 정광운을 상대로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터트리면서 그라운드를 돌았고, '예비신인' 포수 신범수는 좌측으로 2루타 두 개를 보내는 등 공격에 힘을 보탤었다. (사진) 마운드에서는 '92 투수'들의 테스트가 진행됐다. 좌완 이준영이 선발로 나와 2회 이상열에게 솔로포를 허용했지만 3이닝 4피안타(1피홈런) 2사사구 2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이후 사이드업 박준표-우완 홍건희-좌완 김명찬-강속구 한승혁이 차례로 마운드에 올라 캠프 성과를 점검받았다. 김기태 감독은 "경기 상황에 따른 플레



이를 강조했고 집중해서 봤다. 1회 백용환이 홈에 주자가 들어오는 사이 한 루를 더 진루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신인들 테스트도 해봤다. 타석에서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선수들이 생각보다 잘 움직여줬고, 두려움 없이 경기를 했다"며 "남은 기간 한차례 더 자체 연습경기를 갖고 선수들의 움직임에 점검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오키나와=김여울기자 wool@